

 <b>과천도시공사</b> www.gcuc.or.kr	<h1>보도자료</h1>	부서	경영혁신부
		담당자	채용담당 김신영 wuen1024@gcuc.or.kr
	설명자료	연락처	02-500-1123

##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채용으로 조직완비

**도시개발실장 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였습니다.**

□ 3월 2일 이슈게이트 <과천도시공사 ‘우여곡절’ 끝에 개발실장 뽑고 1년여만에 조직완비>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임

□ 보도 주요내용

- 과천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27일 도시개발실장과 개발팀장 등을 채용하는 공고문을 띄워 6월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으나 합격자의 신상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 과천도시공사는 11월27일 ‘전임계약직 가급(도시개발실장) 경력경쟁 채용공고’를 내고 도시개발실장 물색에 나섰지만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공고를 ‘취소공고’ 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 채용과정에서도 “합격자가 인성검사 시험을 엉망으로 치렀는데 어떻게 임명됐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도시공사 입장

- 과천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1일 도시개발실장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후보등록 과정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하면서 합격자의 신상문제를 들었으며,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과천시공사는 지난해 11월27일 ‘전임계약직 가급(도시개발실장) 경력경쟁 채용공고’를 내고 유능한 인재에게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내부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있는 자격기준으로 확대하여 재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실장 응모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인성검사에서는 인성검사 성적과 상관없이 적합여부만 판단하고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과 채용담당자만이 알고 있으며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격자가 인성검사 시험을 엉망으로 치렀는데 어떻게 임명됐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